# “마스크 벗으니 공기도, 꽃향기도 새롭게 느껴져요”

실외 마스크 해제 첫 황금연휴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 ‘북적’

## 문화전당 하늘마당·순천만 도심 휴식처 등 인파 몰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량 지난해보다 최대 36.7% 늘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출입이 통제됐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이 지난 2일 다시 문을 열었다. 8일 오후 휴일을 맞아 친구나 가족 단위로 찾은 시민들이 잔디에 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마스크를 벗으니 맑은 공기도, 봄꽃 향기도 새롭게 느껴져요. 간만에 봄을 제대로 즐긴 것 같네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첫 주말이자 징검다리 연휴였던 5월 5일~8일, 광주·전남은 늦봄 정취를 즐기러 야외로 나온 행락객들로 곳곳이 북적였다.

8일 풍암·운천저수지 등 광주시내 공원에는 오전 10시께부터 산책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찾아왔다. 아직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시원하게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에서 만난 김종화(70·서구 금호동)씨는 산책로 곳곳에 빨갛게 핀 장미를 사진기에 담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평소 자주 오던 곳이지만,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 공기도 좋고 꽃향기도 나 더욱 좋다”며 “아직은 마스크를 벗기 조심스럽고, 다른 사람과 마주치면 눈치가 보인다. 그래도 차츰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기분이 들어 설렌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이대경(30·광산구 우산동)·안재은(30)씨 부부도 이도담·도란(4) 쌍둥이 자녀 손을 꼭 잡고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를 찾았다. 아이들은 답답한 마스크 없이 마음껏 자전거를 타며 봄볕을 즐겼다.

안재은씨는 “근처에 일이 있어 서구를 들렀는데,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태워주고 싶어 공원을 찾았다”며 “아이들도 한 차례 코로나19를 거쳐간 후라 마스크 벗고 있어도 비교적 안심된다. 아이들만이라도 마스크 벗고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북구 생용동 패밀리랜드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연휴를 맞아 연인이나 친구들과 함께 온 모습도 보였다.

가족단위로 방문한 시민들은 과일과 각종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싸와 돗자리를 펴고 그늘에 앉아 코로나19 방역제한이 풀린 연휴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앞서 지난 7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도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그동안 하늘마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닫혀있다가 지난 2일 다시 개장했다.

자정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하늘마당에는 40여개의 돗자리가 펼쳐져 적게는 2명 많게는 수십명의 인원들이 둘러 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돗자리에는 치킨, 피자, 떡볶이, 과자 등이 깔려 있었고 맥주 등 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부는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까지 깔고 인근 편의점과 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해 먹기도 했다.

정찬영(26)씨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왔는데 날씨가 풀리고 연휴까지 겹쳐 오랜만에 하늘마당에 누워서 하늘을 보니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연휴를 틈타 시외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이들도 많았다.

연휴 동안 광주·전남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모처럼 교통량이 급증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5일 하루 동안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은 총 5만 4976대로, 지난해 같은 날 4만 6248대에 비해 18.8% 증가했다.

동광주, 동광산, 목포 톨게이트도 이날 각각 6만 6187대, 5만 6200대, 4만 7084대 차량이 통과해 지난해보다 11.1~36.7% 통행량이 늘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어린이날인 5일 2만 7000여명이 방문, 지난해 2만 2000여명보다 찾는 이가 22.7% 늘었다. 6일과 7일 방문객은 3만 6000여명으로 지난 주말 이틀간(4월 30일~5월 1일) 방문객 2만 2000여명에 비해 63%나 급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국 진보 원로들 14일 ‘광주 선언’

## 함세웅 신부·김상근 목사 등 종교시민사회 전국대표자 참여 새 정부 정책 우려 등 담길 듯

민주진보진영 원로들이 새정부 출범 직후이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이번 주말인 14일 광주에서 모임을 갖고 시국 관련 메시지를 내놓기로 해 주목된다.

8일 광주시민사회에 따르면 이번주 토요일인 14일 오후 광주시 동구 YMCA에서 ‘종교시민단체 전국대표자 원탁회의’가 열린다. 행사를 추진하는 한 인사는 “대선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한 원로들이 시국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오월정신을 토대로 민주주의의 복원과 민중의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해 원로들께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인 함세웅 신부, 민주개혁정부를 염원하는 원로시민모임의 김상근 목사,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등 전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원로 등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대주교와 지선 스님 등도 원탁회의 참석 대상자로 한 때 알려졌으나 김 대주교는 현재 로마에 체류 중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지선 스님은 정부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탁회의와 시국선언문의 주제는 ‘다시 민주주의’로 알려졌으나 변동 가능성도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완벽한 진상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도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 인사에서 특정 지역 인사를 위주로 기용하는 문제와 함께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 유연화, 여성·장애인 차별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을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원탁회의 직후 참석자들은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계엄군에 처형’ 철도기관사 장환봉씨 여순사건 첫 민간인 희생자 순직 인정

74년전 여순사건 와중에 ‘좌익 분자’로 내몰려 계엄군에 처형된 철도기관사 고(故) 장환봉(당시 29세)씨가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유족들이 2011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나선지 11년 만이다.

8일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와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일 고 장봉환씨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 신청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6월 1일 유족이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낸지 1년 8개월 만이다.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고인은 1948년 10월 26일 ‘제주 4·3사건’ 진압(토벌) 명령을 거부하고 순천으로 온 국군 14연대 군인들에 동조했다는 이유(내란 혐의 등)로 체포돼 처형됐다. 영장도 없이 체포된 것은 물론 총살 뒤 주검마저 불태워졌다는 것이 유족 측 설명이다.

유족들은 지난 2009년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고인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자 2011년 법원에 무죄를 요청하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희생자 중 처음으로 장환봉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의 장녀인 장경자 씨는 “보훈처에서 한차례 기각 결정이 있어던 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11년 만에 순직까지 인정받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74년 만에 순직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아사히신문 5·18 미공개 사진 특별전

## 희귀 자료 200여점 공개…7월 31일까지 5·18 기록관

지난해 광주일보에서 최초로 보도한 아사히신문 미공개 사진〈2021년 5월 31일자 광주일보 11면〉을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전시회에서 볼 수 있게 됐다.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5·18 아사히신문사 미공개컬렉션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 사진부 기자였던 고(故) 아오이 카츠오 씨가 1980년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 희귀 자료 200여점이 공개된다.

전시 자료는 유족과 아사히신문사가 40년간 보관한 것이다. 공개 자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불타는 MBC 건물, 영안실에 안치된 희생자, 전남대병원에서의 치료장면, 버스에서 내린 시민을 구타하는 계엄군의 모습, 차량시위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옛 전남도청 앞에 정박중인 탱크 사진 등 일부는 컬러사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 참여작가 2명이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영상·미디어아트 등도 함께 전시된다.

전시는 유튜브 채널(5·18 민주화운동기록관)과 홈페이지(https://www.518archives.go.kr/index.do?PID=099)로도 볼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